

불안정 성인애착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순차매개효과*

이 가 연

이 정 윤†

성신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이 각각 매개하는지, 나아가 두 변인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여자 대학생 402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정된 친밀관계경험 척도, 성적 자기주장 척도, 거절민감성 척도, 자기침묵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과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불안애착의 경우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 모두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회피애착의 경우는 거절민감성은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지만 자기침묵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순차매개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요 결과의 시사점과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불안정 성인애착, 성적 자기주장, 거절민감성, 자기침묵

* 본 연구는 이가연(2020)의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불안정 성인애착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순차매개효과’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이정윤,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Tel : 02-920-7603, E-mail : jungyoon@sungshin.ac.kr

성에 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이전 시기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성을 경험하고 있다(문인오, 김신희, 이정란, 2020).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비해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개인의 안전한 성행동의 비율도 매우 낮아 성 문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영희, 문승태, 강희순, 2013).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 중 30% 이상이 데이트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서경현, 이경순, 2002), 이성 교제 중 자신이 원치 않는 애무를 허용한 학생이 20% 이상이었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허락한 학생도 19.4%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학생들이 성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향숙, 2001; 한경순, 함미영, 2000).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성적 자기주장은 데이트 성폭력이나 원치 않는 성 접촉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Rickert, Sanghvi, & Wiemann, 2002). 성적 자기주장(sexual assertiveness)이란 자신의 몸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성적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나 사회적인 땃땃함, 자부심 등을 고려하여 주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지연, 이은설, 2006). 성적 자기주장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방지해주기도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 성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연인 간의 성 만족도나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MacNeil & Byers, 2005). 하지만 이러한 성적 자기주장이 낮을 경우에는 원하지 않은 임신이나 성병 감염, 인공유산 등과 같은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이후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스로에 대

한 실망을 하게 되고, 자신이 희생자가 된 듯한 생각, 자존감의 손상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Impett & Peplau, 2003).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제까지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성 역할이나 폭력을 학습한 것이 어떻게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탐색하는 것들이었다(이경인, 허난설, 최수미, 2017). 또한, 성적 자기주장 또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사회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되고 있어, 애착 이론이나 의사소통이론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 주제들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Shorey, Cornelius, & Bell,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 중 개인 내적 요인으로 성인애착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Bowlby(1982)에 의하면, 애착은 한 사람이 부모 및 양육자와 같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영아는 부모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애착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탐색할 때 안전기지(secure base)로 사용한다. 따라서 생후 초기에 영아와 부모 또는 양육자 간의 관계는 아동의 애착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양수진, 이정윤, 2012). 이러한 아동기의 애착관계는 성인기에도 지속되며, 이를 성인애착으로 부른다. 성인애착은 Bowlby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한데, 생애 초기 영아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관한 정

신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나중에 애착 체계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관계를 해석하는 태도와 관점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후속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Bowlby, 1982).

이러한 성인애착은 범주모형과 차원모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범주모형은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Hazan과 Shaver(1987)의 이론을 확장하여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의 여부에 따라 4가지의 유형으로 성인애착을 구분한다. 4가지 유형은 안정, 집착, 무시, 두려움이며, 안정 유형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유형이다. 집착은 자신에게는 부정적인 가치감을 가지나, 타인에게는 과도하게 의존적이거나 타인을 이상화하는 유형이다. 무시유형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나, 타인에게는 부정적인 유형으로 스스로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유형이다. 두려움 유형은 자신과 타인의 표상이 모두 부정적인 유형으로 타인에게 상처나 거절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유형이다.

이와 달리 차원모형은 성인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두 차원으로 구분한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불안애착은 버림받는 것에 관하여 과도하게 두려움을 가지는 것과 애착과 관련된 사고에 관하여 집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회피애착은 친밀감에 대하여 회피하고, 애착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타인의 존재와 필요에 대하여 부인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rennan et al., 1998). 따라서 불안애착이 높으면 관계에 대하여 집착하거나 몰입하고 친밀한 대상에 대하여 근접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회피애착이 높은 경우에는 애착과 관련한 사고나 정서에 지나치게 방어

적인 모습을 보인다(Mikulincer, Shaver, Cassidy, & Berant, 2009; Mikulincer & Shaver, 2008). 이러한 차원모형은 범주모형보다 더 우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Ozen, Sumer, & Demir, 2010), 국내연구에서도 차원모형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김성현,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차원모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인하고자 한다.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성관계에서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갈등이 깊어져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박희경, 2011). 특히 불안정 애착을 가진 여성은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rra & Longstreth, 1990). 이러한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은 성적 자기주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애착은 파트너의 관심이나 책임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하거나, 피임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Cooper, Shaver, & Collins, 1998). 반면, 회피애착은 연인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불안해하며, 이러한 친밀감에 대한 불편감은 성관계에 대한 연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Impett & Peplau, 2000). 이처럼 애착유형별로 성적 자기주장에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성인애착을 하위유형별로 구분하여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각기 성적 자기주장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연구들은 불안정 성인애착을 단일요소로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단일요소로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성적 자기주장과와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유형별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성인애착이라 하더라도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을 성인이 된 시점에서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이정희, 2005). 따라서 애착 이슈로 인한 성적 어려움에 개입하고자 할 때는 성인애착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성인애착이 성적 자기주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제 3의 변인을 찾아 이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유형별로 불안정 성인애착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기여하는 매개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여러 가능한 매개변인 가운데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거절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은 사회불안과는 다르게 중요한 타인에 의하여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타인이 거절할까 불안해하고, 작고 모호한 단서도 예민하게 거절로 받아들이며, 거절에 과잉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이다(Downey & Feldman, 1996). 인지-정서적 과정이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지닌 신념과 기대, 정서, 지향성 그리고 유능성과 같은 정신적 표상들이 인지-정서 조합들을 이루며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Ayduk et al., 2000). 이러한 거절민감성이 높은 것, 즉 거절을 예측하고 거절 신호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잉 경계하는 것은 주로 사회적 관계에

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질적인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희경, 김정희, 이흥권, 2014).

이러한 거절민감성은 애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기 양육자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로 인하여 이후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타인에 의하여 거절당할 수 있다는 높은 예상과 예기불안을 초래하게 되며(Harper, Dickson, & Welsh, 2006), 이로 인하여 사소하고 애매한 거절 단서를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의도적인 거절로 인지한다(윤석은, 김명주, 강민준, 박재현, 하창순, 2016). Downey와 Feldman(1996)은 거절민감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더 활성화되는데, 불안정 애착인 사람이 안정 애착인 사람보다 거절민감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불안정 애착의 하위유형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은 거절민감성 또한 높았고, 마찬가지로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도 거절민감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영, 2010; 박희경, 2011; 성정아, 홍혜영, 2014). 또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윤석은 등(2016)의 연구에서 거절민감성은 성인애착과 외로움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로 미뤄보아 불안정 성인애착은 거절민감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절민감성은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유미영, 하정희, 2019). 거절민감성이 큰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 것에 관하여 걱정하며, 자신과 상대의 욕구가 상충될 때 상대방의 욕구에 따르는 행동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박희경, 2011; 성정아, 홍혜영, 2014). 따라서 성관계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남성들과

의 관계에서 거절을 경험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성적 자기주장을 잘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유외숙, 2004; Impett & Peplau, 2002). 관련된 선행 연구로 Edwards와 Barber(2010)의 연구에 의하면,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자신은 피임기구를 사용하고 싶어도 연인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을 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거절민감성 이외에 불안정 성인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자기침묵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침묵이란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된 관계 내 자신감(sense of self)으로, 타인의 욕구를 우선으로 하고 자신의 실제 정서는 감시하고 억누르며, 외부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김성휘, 홍혜영, 2019; Jack, 1991; Jack & Dill, 1992). 갈등 상황에서 자기침묵은 수동적인 방법으로서, 자신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 양측 모두 패배하는 상황을 초래한다(Rusbult, Bissonette, Arriaga, & Cox, 1998; Rusbult, Johnson, & Morrow, 1986).

이러한 자기침묵은 성인애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불안정 성인애착 유형인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침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방현아, 김혜정,

2021).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행동 또는 생각이 드러나면 타인과의 관계가 깨질 것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방현아, 김혜정, 2021). 따라서 불안정 성인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관계가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침묵을 사용하며(이단비, 2019), 불안정 성인애착의 두 가지 차원인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을 나눠서 살펴본 연구에서도 불안애착, 회피애착 둘 다 자기침묵과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김선하, 2019; 문민경, 2013; 방현아, 김혜정, 2021). 또한, 유사한 선행연구로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고 친밀감이 부족한 여성 또한 자기침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연, 김미영, 2009; Thompson & Hart, 1996).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미뤄보아 불안정 성인애착인 사람들일수록 자기침묵이 높아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자기침묵은 성적 자기주장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기침묵은 여성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고 침묵하게 하는 수동적인 갈등대처방식으로(Jack, 1991), 연인과의 성관계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Jack & Dill, 1992).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실제로 자기침묵이 높은 사람들이 성적 자기주장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최효선, 양수진, 2018; 고주연, 2020; Jacobs & Thomlison, 2009). 또한, 유사한 연구로 자기침묵이 성적 자기주장 중 한 요소인 ‘임신과 성병을 막기 위해서 피임을 하거나 주장하는 것’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었다(DeMarco, Miller, Patsdaughter, Chisolm, & Grindel, 1998; Widman, Welsh, McNulty, & Little, 2006). 이러한 연구들

로 미뤄보아 자기침묵은 성적 자기주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에도 순차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의 경험을 ‘불안’으로 느낄 때 자기침묵, 사회적 회피 등과 같이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Ayduk, Downey, Testa, Yen, & Shoda, 1999; Ayduk, May, Downey, & Higgins, 2003; Downey & Feldman, 1996). 불안정 성인애착인 사람들은 거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들은 관계에 버림받는 것 또는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절을 인식할 때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 자기침묵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자 자기침묵의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김보람, 2014; 정신아, 2013; Surra & Longstreth, 1990; Ayduk et al., 2003; Harper et al., 2006).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민선, 노안영(2018)의 연구에서 자기침묵은 거절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러한 연구 결과들로 보았을 때, 거절민감성은 자기침묵 경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이 각각 매개하는지, 나아가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이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미 형성된 애착의 질은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이정희, 2005). 따라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기여하는 변인과 경로를 밝히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적 자기주장의 예측 변인으로서 불안정 성인애착뿐 아니라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모형(그림1)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거절민감성, 자기침묵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거절민감성, 자기침묵이 각각 매개하는가? 셋째,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거절민감성과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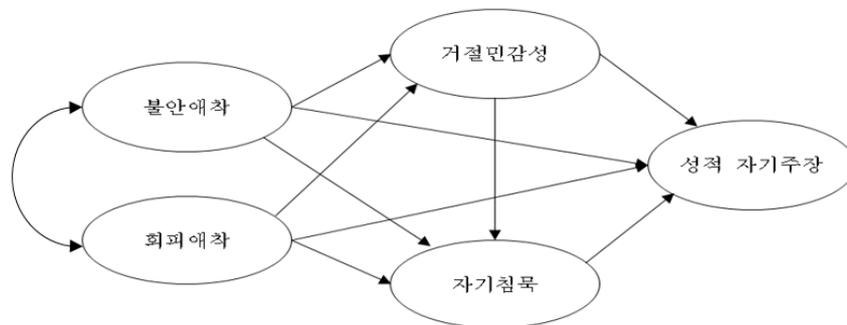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침묵이 순차 매개하는가?

측정도구

연구방법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IRB(승인번호: SSWUIRB 2019-046)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전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29세 미만에 해당하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다. 또한, 본 연구에는 성적 자기주장과 같은 개인적이고 민감한 설문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설문 시작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인의 경험이나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옳거나 그른 답은 없으므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할 것’과, ‘설문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설문 도중 불편함을 느낄 시에는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받아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556부였으나, 수거한 설문지 중 ‘이성교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42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인 12부를 제외한 40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은 21.26세($SD=2.0$)로 나타났으며, 이성교제의 경험 수는 4명 이상이 149명(37.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명이 108명(26.9%), 2명이 82명(20.4%), 3명이 63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는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발하고 김성현(2004)이 번안, 타당화한 수정된 친밀관계경험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ECR-R)를 사용하여 성인애착을 측정하였다. 성인애착 척도의 지시문은 ‘다음 문항은 개인의 성격특징을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도의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라고 하여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척도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등과 같은 문항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된 애착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불안애착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 회피애착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1, .90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기주장 척도

본 연구에서는 Patricia 등(1997)이 개발하고 최명현(2005)이 수정하고 번안한 성적 자기주

장 척도를 사용하여 성적 자기주장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성적 접촉 거절 요인’(6문항)과 ‘임신과 성병 예방요인’(6문항)과 같은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12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명현(2005)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이며, 각 하위 요인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거절 .83, 임신, 성병 예방요인 .90으로 나타났다.

거절민감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거절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서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절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이복동(2000)이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거절 불안 요인’(18문항)과 ‘수용기대 요인’(18문항)과 같은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36문항 6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민감성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이며, 각 하위 요인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거절불안 .91, 수용기대 .84로 나타났다.

자기침묵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침묵을 측정하기 위해 Jack과 Dill(1992)이 개발한 자기침묵 척도(Silencing-The-Self Scale: STSS)를 김미진(200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외현화된

자기지각 요인(6문항),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요인(7문항), 분열된 자기 요인(7문항), 자기침묵 요인(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9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자기침묵을 나타낸다. 김미진(2009)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0이며, 각 하위 요인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외현화된 자기지각이 .75,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이 .68, 분열화된 자기는 .75, 자기침묵은 .80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25.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기술 통계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및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성적 자기주장, 불안정 성인애착, 거절민감성, 자기침묵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하였고, 팬텀 변인을 설정한 후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Rindskopf, 1984).

결 과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연구 대상자의 불안애착, 회피애착, 성적 자기주장, 거절민감성 그리고 자기침묵의 관계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구분	1	1_1	1_2	1_3	2	2_1	2_2	2_3	3	4	5
1	-										
1_1	.93***	-									
1_2	.94***	.84***	-								
1_3	.94***	.80***	.81***	-							
2	.25***	.23***	.22***	.25***	-						
2_1	.23***	.20***	.22***	.23***	.93***	-					
2_2	.26***	.26***	.24***	.24***	.94***	.82***	-				
2_3	.21***	.19***	.17**	.23***	.91***	.74***	.77***	-			
3	.52***	.51***	.48***	.49***	.33***	.27***	.33***	.31***	-		
4	.55***	.55***	.50***	.50***	.28***	.23***	.26***	.29***	.53***	-	
5	-.18***	-.16**	-.13**	-.19***	-.12*	-.07	-.09	-.17**	-.21***	-.24***	-
<i>M(SD)</i>	3.56 (1.04)	3.52 (1.08)	3.89 (1.10)	3.37 (1.18)	3.40 (.94)	3.64 (1.07)	3.57 (1.00)	3.00 (1.00)	2.69 (.69)	2.97 (.59)	4.32 (.71)

* $p < .05$, ** $p < .01$, *** $p < .001$

1.불안애착 1_1.불안애착 꾸러미1 1_2.불안애착 꾸러미2 1_3.불안애착 꾸러미3 2. 회피애착 2_1.회피애착 꾸러미1 2_2.회피애착 꾸러미2 2_3.회피애착 꾸러미3 3.거절민감성 4.자기침묵 5.성적 자기주장

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변인 별로 살펴보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거절민감성, 자기침묵과 유의한 정적 상관, 성적 자기주장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성적 자기주장의 경우 거절민감성, 자기침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거절민감성은 자기침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항 꾸러미 방법을 통해 생성한 애착 변인들을 포함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 범위는 -1.47~.28, 첨도 범위는 -.57~1.32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는 10보다

작으므로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함을 알 수 있었고(Kline, 2015), 분산팽창계수(VIF)는 1.30~2.14로 나타나 모두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 (1998)이 제시한 문항 꾸러미(Item Parcels)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문항을 결합하여 측정변인을 새로 제작한 후 분석에 활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Russell et al., 1998). 개별문항을 그대로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성을 감소시키

고 신뢰도가 높아진다. 또한 추정해야 하는 모수의 수가 줄어들어 측정오차가 낮아지고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요인인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 변인에 문항 꾸러미 방법을 적용하였다. 문항 꾸러미는 1요인으로 고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 부하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문항의 순위를 지정해서 모든 꾸러미에 비슷한 요인 부하량이 할당되도록 생성하였다. 꾸러미는 각 변인 당 3개씩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IFI, TLI, CFI, RMSEA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FI(Bollen, 1989), TLI(Tucker & Lewis, 1973), CFI(Bentler, 1990)는 .90이상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보고 RMSEA는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2). 분석결과,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거절의 측정오차의 분산이 음수로 산출되는 Heywood case로 나타나, 이를 아주 작은 수(0.0001)로 고정된 후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IFI=.952, TLI=.935, CFI=.951, RMSEA=.075로 양호하게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불안애착 .88~.92, 회피애착 .84~.92, 거절민감성 .59~.90, 자기침묵 .67~.77, 성적 자기주장 .48~1.00으로 나타났다.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가 최소 기준인 .4

표 2.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Variable		B	SE	β	t
불안애착	불안애착1	.96	.04	.92	26.96***
	불안애착2	.97	.04	.92	26.88***
	불안애착3	1.00		.88	
회피애착	회피애착1	1.13	.05	.88	22.18***
	회피애착2	1.11	.05	.92	23.14***
	회피애착3	1.00		.84	
거절민감성	거절불안	1.00		.90	
	수용기대	.45	.05	.59	9.87***
자기침묵	외현화된 자기지각	1.13	.08	.77	13.83***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87	.07	.67	12.23***
	분열화된 자기	1.02	.08	.71	12.80***
	자기침묵	1.00		.73	
성적 자기주장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거절	1.00		1.00	
	임신 및 성병 예방 요인	.54	.05	.48	11.08***

*** $p < .001$

표 3.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1	-				
2	.28***	-			
3	.64***	.32***	-		
4	.66***	.30***	.68***	-	
5	-.23***	-.14**	-.35***	-.33***	-

** $p < .01$, *** $p < .001$,

1.불안애착 2.회피애착 3.거절민감성 4.자기침묵 5.성적 자기주장

이상으로 나타나(Wang & Wang, 2019), 14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잠재변인을 구성한 측정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상관계수가 .85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모형 검증

불안정 성인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

에서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IFI=.952$, $TLI=.935$, $CFI=.951$, $RMSEA=.075$ 로 양호하게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2와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불안애착은 거절민감성($\beta=.59$, $p < .001$), 자기침묵($\beta=.37$, $p < .001$)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며, 회피애착은 거절민감성($\beta=.16$, $p < .01$)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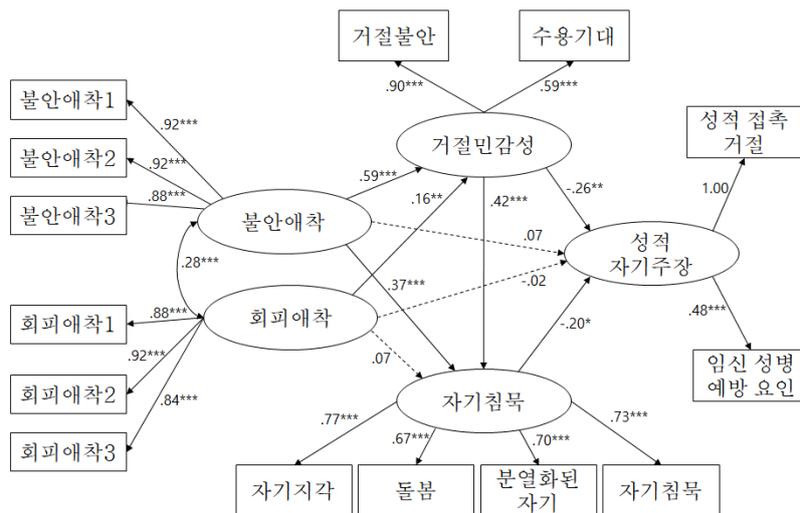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표준화 회귀계수)

표 4.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Path	B	SE	β	t
불안애착->거절민감성	.48	.04	.59	11.52***
불안애착->자기침묵	.19	.04	.37	5.31***
불안애착->성적 자기주장	.05	.06	.07	.95
회피애착->거절민감성	.16	.05	.16	3.20**
회피애착->자기침묵	.04	.03	.07	1.35
회피애착->성적 자기주장	-.02	.05	-.02	-.37
거절민감성->자기침묵	.27	.05	.42	4.90***
거절민감성->성적 자기주장	-.24	.09	-.26	-2.75**
자기침묵->성적 자기주장	-.29	.13	-.20	-2.20*

* $p < .05$, ** $p < .01$, *** $p < .001$

절민감성은 자기침묵($\beta = .42, p < .001$)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성적 자기주장($\beta = -.26, p < .01$)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침묵은 성적 자기주장($\beta = -.20, p < .05$)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안애착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과 회피애착이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증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 변인(Rindskopf, 1984)을 설정한 후 부트스트래핑(2,000회)을 실시하였으며(Shrout & Bolger, 2002), 분석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불안애

표 5. 간접효과 Bootstrapping 분석결과

Indirect effects	Bootstrap estimates			95% 신뢰구간	
	B	β	SE	Boot LLCL	Boot ULCL
불안애착 → 거절민감성 → 성적 자기주장	-.11**	-.15	.05	-.22	-.03
불안애착 → 자기침묵 → 성적 자기주장	-.06*	-.07	.04	-.14	-.01
불안애착 → 거절민감성 → 자기침묵 → 성적 자기주장	-.04*	.05	.02	-.08	-.01
회피애착 → 거절민감성 → 성적 자기주장	-.04**	.04	.03	-.12	-.01
회피애착 → 자기침묵 → 성적 자기주장	-.01	.01	.02	-.06	.01
회피애착 → 거절민감성 → 자기침묵 → 성적 자기주장	-.01*	.01	.01	-.04	-.01

* $p < .05$, ** $p < .01$

착이 거절민감성을 거쳐 성적 자기주장으로 가는 간접경로($\beta = -.15$, CI: $-.22 \sim -.03$), 불안애착이 자기침묵을 거쳐 성적 자기주장으로 가는 간접경로($\beta = -.07$, CI: $-.14 \sim -.01$), 불안애착이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을 순차적으로 거쳐 성적 자기주장으로 가는 간접경로($\beta = .05$, CI: $-.08 \sim -.01$), 회피애착이 거절민감성을 거쳐 성적 자기주장으로 가는 간접경로($\beta = .04$, CI: $-.12 \sim -.01$), 회피애착이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을 순차적으로 거쳐 성적 자기 주장으로 가는 간접경로($\beta = .01$, CI: $-.04 \sim .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절민감성은 불안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자기침묵은 불안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이 불안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완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회피애착이 자기침묵을 거쳐 성적 자기주장으로 가는 간접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들의 관계를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이 각각 매개하는지, 나아가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이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성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각 변인간 매개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거절민감성은 불안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자기침묵은 불안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이 불안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완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회피애착이 자기침묵을 거쳐 성적 자기주장으로 가는 간접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애착, 회피애착, 성적 자기주장, 거절민감성, 자기침묵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모두 성적 자기주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불안정 성인애착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손승연, 임성문, 2011; 이경인 등, 2017; 김수정, 허찬희, 이지연, 2018; Impett & Peplau, 2000; Schachner & Shaver, 2004; Gentzler & Kerns, 2004)와 일치한다. 반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거절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높을수록 거절에 더 크게 과잉반응하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며, 불안정 성인애착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거절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선행연구(이복동, 2000; 김윤영,

2010; 박희경, 2011; 성정아, 홍혜영, 2014; Harper et al., 2006; Erozkán, 2009)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불안정 성인애착의 하위유형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모두 자기침묵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불안애착이나 회피애착인 사람일수록 자기침묵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며,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침묵을 살펴본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방현아, 김혜정, 2021; 이단비, 2019; 문민경, 2013).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 사이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일 경우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변혜정, 2004; 유외숙, 2004; 하정희, 2019; Berenson et al., 2015; Edwards & Barber, 20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는데, 이는 거절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일수록 자기침묵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김보람, 2014; 정신아, 2013; Ayduk et al., 2003; Harper et al.,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 사이에서는 부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침묵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최효선, 양수진, 2018; 고주연, 2020; Widman et al., 2006; Jacobs & Thomlison, 200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불안정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각 변인의 개별 경로를 살펴본 결과 불안정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거절민감성,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의 직접적인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안정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의 직접적인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거절민감성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여 직접적인 효과가 감소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불안정 성인애착과 성적 자기주장간의 관계를 단순한 인과관계로 이해하기보다는 거절민감성과 같은 매개 변인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결과,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성적 자기주장과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모두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인존재감을 매개로 하여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수정 등, 2018)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어린시절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경우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로 인하여 사소하고 애매한 거절 단서를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의도적인 거절로 인지하게 되고(윤석은 등, 2016), 연인과의 성관계에서도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에서 거절을 경험할 것이라고 불안을 느껴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유외숙, 2004; Impett & Peplau, 2002)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거절민감성이 불안정 성인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불안정 성인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간의 개별 경로를 확인한 결과, 불안애착과 자기침묵,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

장의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안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회피애착과 자기침묵의 경로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성적 자기주장과 관계에서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자기침묵의 매개변인이 작용하여 직접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피애착과 자기침묵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자기침묵의 하위요인이 영향을 미쳐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회피애착은 자기침묵의 하위유형 중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과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회피애착의 특성 중 타인과 거리 두는 것을 선호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기희생과 상관이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문민경, 2013; 김선하, 2019; 방현아, 김혜정,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인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회피애착과 자기침묵의 직접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기침묵의 하위요인과 더불어, 거절민감성의 간접 경로 또한 회피애착과 자기침묵의 직접 경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본 연구에서 회피애착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을 함께 고려하는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본 연구 결과는 회피애착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으로 연결되는 순차매개효과는 있으나 자기침묵의 단순매개효과는 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회피애착과 자기침묵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애착으로 인하여 거절민감성이 높은 내담자들이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자기침묵이라는 행위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침묵은 불안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완전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 애착이 높은 사람이 자기침묵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김선하, 2019; 문민경, 2013; 방현아, 김혜정, 2021),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겪는다(최효선, 양수진, 2018; 고주연, 2020)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불안애착이 버림받는 것에 과도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침묵하며 이러한 자기침묵이 연인과의 성관계에서도 나타나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에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의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침묵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김선하, 2019; 문민경, 2013; 방현아, 김혜정, 2021)와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손승연, 임성문, 2011; 김수정 등, 2018)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애착이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하기보다, 본 연구에서 회피애착은 거절민감성에서 자기침묵을 통해 성적 자기주장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추가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거절

민감성과 자기침묵을 매개변인으로 차례대로 투입한 결과, 이들은 순차적인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성인애착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사소하고 모호한 거절 단서를 고의적인 거절로 쉽게 지각하는 경향성을 가지며(이복동, 2000; 김윤영, 2010; 박희경, 2011; 성정아, 홍혜영, 2014; Erozkán, 2009), 거절에 민감할수록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자 자기침묵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임정민, 2014; Ayduk et al., 2003; Purdie & Downey, 2000),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연인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겪는다(최희선, 양수진, 2018; Jacobs & Thomlison, 2009; Widman et al., 2006)는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직접경로가 성립하지 않은 불안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회피애착과 자기침묵,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거절민감성이 매개하여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거절민감성의 심리적 기제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애착문제로 인해 성적 자기주장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상담할 때 이미 형성된 애착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에 초점을 두어 개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은영, 김정희, 최희선(2021)의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 불안정 성인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거절민감성이 불안애착과 성적 자기주장을 완전매개하였고,

특히 회피애착에서는 거절민감성을 통해서만 자기침묵이 높아졌으며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차후 성적 자기주장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을 위하여 거절민감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애착 이슈로 인한 성적 자기주장의 어려움에 개입하고자 할 때는 성인애착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거절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특성에 관한 개입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적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안정 성인애착 중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침묵이라는 수동적인 갈등 대처방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 거절민감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기침묵의 대처방안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에서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일수록 거절민감성을 먼저 다룬 후 자기침묵 대신 건강한 대처방안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 본 연구는 애착과 관련된 변인을 고려하여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폭력에 관한 사회학습 변인이거나 성역할과 관련된 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성적 자기주장의 발달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역동적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요한 발달적 요인 중 하나인 불안정 성인애착을 고려하여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성인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

애착으로 구분하여 성적 자기주장과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영향력을 검증함에 있어 두 변인 간의 순차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성인애착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이 매개변인으로 확인됨으로써 애착문제로 인해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이들 변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상담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각각의 변인들이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횡단적 연구로서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인과적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종단 연구를 통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바 개인의 성관계에 대한 태도인 성적 자기주장에 관한 문항들이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연구 참가자들이 다소 방어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탐색한 변인들은 모두 개인 내적인 변인들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나 성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요인들(김보미, 박정숙, 2015; 우소현, 2019)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거절민감성

과 자기침묵 이외에 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성역할 태도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변인에 대한 탐색이 추가적으로 이뤄진다면, 성적 자기주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입할 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 당시에 이성교제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까지 이성교제를 해본 적이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연인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알아보는 연구이므로 설문조사 시점에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인애착 척도는 수정된 친밀관계경험척도로, 척도 지시문을 제시할 때 구체적으로 애착을 느끼는 친밀한 대상을 떠올리며 응답하여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기주장에 관한 연구이므로, 척도를 제시할 때 연인을 떠올리며 응답하라고 제시하여야 연구의 목적에 더 부합하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시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불안정 성인애착 중 회피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순차매개효과 크기가 다른 매개효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해석 외에도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본 연구의 순차매개효과에 대한 해석이 보다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주연 (2020). 신체감시가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신체 수치심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2009). 여대생의 자기침묵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람 (2014). 거절민감성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재확인 추구하고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미, 박정숙 (2015). 남녀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계: 성별의 차이. 여성간호학회지, 21(1), 11-22.
- 김선하 (2019).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2004). 친밀관계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홍혜영 (2019). 대학생의 자기비난과 자기침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263-282.
- 김수정, 허찬희, 이지연 (2018). 불안정 성인애착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논총, 34(1), 111-139.
- 김영희, 문승태, 강희순 (2013).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간호학회지, 19(3), 166-175.
- 김윤영 (2010). 여자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도: 거부민감성과 외로움을 매개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숙 (2001). 대학생의 애착, 사랑유형에 따른 성행동.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민경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인오, 김신희, 이정란 (2020). 대학생의 성 지식, 성 태도 및 자기통제력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연구학회지, 4(3), 11-22.
- 박희경 (2011).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현아, 김혜정 (2021).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1(5), 73-83.
- 변혜정 (2004).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반성폭력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2), 41-74.
- 서경현, 이경순 (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353-368.
- 성정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87-414.
- 손승연, 임성문 (2011). 성인애착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관계. 대학생생활연구, 17(2), 17-36.
- 양수진, 이정운 (2012).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4), 1921-1935.
- 우소현 (2019). 성폭력 예방교육이 여성 만성정신질환자의 성폭력 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미영, 하정희 (2019). 여대생의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1), 47-66.
- 유외숙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 모형: 대학생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석은, 김명주, 강민준, 박재현, 하창순 (2016). 대학신입생의 성인애착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자존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1), 345-367.
- 이경인, 허난설, 최수미 (2017).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남녀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과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551-567.
- 이단비 (2019).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적 섭식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선, 노안영 (2018).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기침묵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175-1192.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2005).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 김미영 (2009). 여성의 대상관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6, 201-226.
- 이지연, 이은설 (2006). 상담 일반: 여성용 성적 자기주장성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7(1), 47-62.
- 임정민 (2014). 거부민감성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적대적 행동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97-121.
- 정신아 (2013). 거절민감성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현 (2005).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관련 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 김정희, 최희선 (2021).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효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8(11), 203-234.
- 최효선, 양수진 (2018). 성인 초기 여성의 젠더 고정관념과 연인관계 만족도: 자기침묵과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431-450.
- 하정희 (2019). 여대생의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1), 47-66.
- 한경순, 함미영 (2000). 일개 대학 대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115-131.
- Ayduk, O., Downey, G., Testa, A., Yen, Y., & Shoda, Y. (1999). Does rejection elicit hostility in rejection sensitive women?. *Social Cognition*, 17(2), 245-271.
-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 Rodriguez, M.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79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renson, K. R., Paprocki, C., Fishman, M. T., Bhushan, D., El-Bassel, N., & Downey, G. (2015). Rejection sensitivity, perceived power, and HIV risk in the relationships of low-income, urban women. *Women & Health*, 55, 900-920.
- Bollen, K. A. (1989). A new incremental fit index for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7(3), 303-316.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380-1397.
- DeMarco, R. F., Miller, K. H., Patsdaughter, C. A., Chisolm, M., & Grindel, C. G. (1998). From silencing the self to action: Experiences of women living with HIV/AID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6), 539-552.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Edwards, G. L., & Barber, B. L.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compliant condom us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 1381-1388.
- Erozka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ing styles: A study with Turkish student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7(1), 1-14.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Gentzler, A. L., & Kerns, K. A. (2004). Associations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sexual experiences. *Person Relationships*, 11(2), 249-265.
- Harper, M. S., Dickson, J. W., & Welsh, D. P. (2006). Self-silenc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 in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435-443.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Impett, E. A., & Peplau, L. A. (2000). *Saying "yes" but thinking "no": Consensual participation in unwanted sex*.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Impett, E. A., & Peplau, L. A. (2002). Why some women consent to unwanted sex with a dating partner: Insights from attachment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4), 360-370.
- Impett, E. A., & Peplau, L. A.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Journal of Sex Research*, 40(1), 87-100.
- Jack, D. C. (1991). *Silencing the self: Women and depress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k, D. C., & Dill, D. (1992).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Schemas of intimacy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1), 97-106.
- Jacobs, R. J., & Thomlison, B. (2009). Self silencing and age as risk factors for sexually acquired HIV/AIDS in midlife and older women.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1(1), 102-128.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ublications.
- MacNeil, S., & Byers, E. S. (2005). Dyadic assessment of sexual self disclosure and sexual satisfaction in heterosexual dating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2), 169-181.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8). Adult attachment and affect regulation.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503-531). New York: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Shaver, P. R., Cassidy, J., & Berant, E. (2009). Attachment-related defensive processes. In J. H. Obegi & E. Berant (Eds.),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n Clinical Work with Adults* (pp. 293-327). Guilford Press.
- Ozen, A., Sumer, N., & Demir, M. (2010). Predicting friendship quality with rejection sensitivity and attachment secur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8(2), 163-181.
- Patricia, J. M., Kathryn, Q., Lisa, L. H., Laura, W., Diane, M. G., Pamela, R. G., & Gary, J. B.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 Purdie, V., & Downey, G.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girls' vulnerability to relationship-centered difficulties. *Child Maltreatment*, 5(4), 338-349.
- Rickert, V. I., Sanghvi, R., & Wiemann, C. M. (2002). Is lack of sexual assertiveness among adolescent and young adult women a cause for concern?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4(4), 178-183.
- Rindskopf, D. (1984). Using phantom and

- imaginary latent variables to parameterize constraints in linear structural models. *Psychometrika*, 49(1), 37-47.
- Rusbult, C. E., Bissonette, V. L., Arriaga, X. B., & Cox, C. L. (1998). Accommodation processes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In T. N. Bradbury (Eds.),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pp. 74-113). New York: Cambridge.
- Rusbult, C. E., Johnson, D. J., & Morrow, G. D. (1986). Impact of couple patterns of problem solving on distress and nondistress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744-753.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chachner, D. A., & Shaver, P. R. (2004). Attachment dimensions and sexual motives. *Personal Relationships*, 11(2), 179-195.
- Shorey, R. C., Cornelius, T. L., & Bell, K. M. (2008). A critical review of theoretical frameworks for dating violence: Comparing the dating and martial field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s*, 13(3), 185-19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urra, C. A., & Longstreth, M. (1990). Similarity of outcomes,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01-516.
- Thompson, J. M., & Hart, B. L. (1996). Attachment dimensions associated with silencing the self. Post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Toronto, Ontario, Canada.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Wang, J., & Wang, X. (20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New York, NY: Wiley & Sons.
- Widman, L., Welsh, D. P., McNulty, J. K., & Little, K. C. (2006). Sexual communication and contraceptive use in adolescent dating coupl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9(6), 839-899.

원 고 접 수 일 : 2021. 10. 05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1. 03

게 재 결 정 일 : 2022. 02. 03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Silencing

Ga-yeon Lee

Jungyeon Lee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silenc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exual assertiveness in female college students. Data from 402 college students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sults indicat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had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nd sexual assertiveness. Additionally, self-silencing had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sexual assertiveness. But self-silencing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voidance and sexual assertiveness. Finally,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silence had a full doubl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nd sexual assertivenes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 adult attachment, sexual assertiveness, rejection sensitivity, self-silencing